



민영화된 공간의 책임자이자 준비된 CEO 손정사장

주요 양력

- 1972 육군사관학교 졸업(28기)
- 2000 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 1975 대한주택공사 입사(부처장 역임)
- 1992 계룡건설(주) 입사(전무 역임)
- 2002 고속도로관리공단 부사장
- 2004 (주)고속도로관리공단 공동대표이사 사장
- 1982 공로표창(건교부장관)
- 1990 공로표창(부천시장)
- 2005 공로표창(건교부장관) / 공로표창(인천광역시장)

“**민영화** 이후 지난 3년 10개월여 기간을 되돌아보면 무한 경쟁이라는 변화된 경영환경 속에서 공단이 독자생존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죠. 저와 모든 임직원은 공단이 경쟁력을 갖춘 영속적인 민간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주택사업전문가로 꼽히는 고속도로관리공단 손정 사장은 쉼 없이 달려온 지난 시간을 회상하듯 이 같이 술회했다. 공단 민영화와 함께 부사장으로 부임해 공단 살림을 도맡아 오던 손 사장은 2004년 3월 공단 제10대 사장으로 정식 취임했다. 손 사장이 공단 사장으로 취임한 데는 그의 경력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손정 사장은 지난 1975년부터 약 18년간을 대한주택공사에 몸담으며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했다. 이어 1992년에는 중견건설업체인 계룡건설 전무로 자리를 옮겨 2002년말까지 주공에서 축적한 경험을 계기로 계룡건설의

주택사업 분야를 진두지휘하며 회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이렇듯 손 사장은 공기업인 주택공사에서 18년간, 민간기업인 계룡건설에서 10년 이상을 몸담으며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생리를 잘 이해하는 동시에 주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을 갖춘 공단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준비된 경영자로 꼽혔다.

손 사장은 사장 취임과 함께 먼저 민영화 이후 불안과 혼란을 느끼던 직원들에게 당시 공단이 수행하던 사업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신규사업인 주택사업으로 사업다각화를 추진해 자신이 갖고 있는 확고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우리는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이와 함께, 각종 경영혁신을 단행해 단기간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기존 공기업문화에 민간기업 마인드를 잘 접목시켜 공단만의 독특한 기업문화도 만들어 냈다. 이러한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2005년에는 건교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대외 수상경력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현재 공단의 경영성과는 탁월한 리더십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손 사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공단의 미래비전을 앞당겨 실행시킬 책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손정 사장은 틈날 때 마다 직원들에게 공단을 '정말 좋은 회사'로 만들어 보자고 강조한다. 손 사장이 말하는 좋은 회사란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힘으로 열어 나간다는 자세와 희망찬 미래가 보장되는 '신바람 나는 회사', 창의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직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열린 회사'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비전있는 회사'라고 한다. 그러한 회사는 결국 고객으로부터 사랑 받을 수 있는 좋은 회사라고 여기고 이런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하여 공단 전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고 설파한다.

공단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며, 자신이 책임하는 동안 공단을 반드시 21C 초우량 건설회사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는 손정 사장.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 뒤로 밝은 공단의 미래가 후광처럼 비춘다.